

독일 2005년 농림업개황

독일 연방정부는 1995년 농업법(Farm Act) 제정 이후 지금까지 50년 동안 해마다 농림업 현황과 주요 정책 동향을 간략하게 기술한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지난 4월 발간된 독일 연방 정부의 농업 보고서(Agricultural Report)는 2004년까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독일 농림업의 기본 현황을 소개한다.

1. 농업구조

2004년 독일에서 2ha 이상의 경지 규모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수는 약 37만 2,400호였다. 2003년과 비교할 때, 약 1만 5,700호(4%)가 감소한 것이다. 2004년도 농업 경영체들의 평균 경지 규모는 45ha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에도 농업 경영체 1개당 평균 경지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에는 이 농업 경영체들 중 약 45.2%인 17만 5,600호가 전일제 개인 농업노동자가 관리하는 농장이었다. 이 농장들이 경영하는 경지면적은 모든 개인 농장들의 농지 면적 중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농장들의 평균 경지 규모는 51ha를 넘고 있다. 독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전일제 노동인구와 시간제 노동인구의 수는 2004년 현재 약 1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과 비교할 때 이는 약 2.4% 감소한 것이다. 가족 농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농

업 인구의 15%는 정규적으로 농장에서 일하는 임노동자이며, 23%가 계절적 농업 임노동자이다.

2. 부가가치

2004년 독일 농업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독일 농업부문 부가가치, 2004년

	금액(유로)	전년 대비 증감율(%)
생산액	38,900,000,000	7.0
중간 소비	26,100,000,000	6.2
순부가가치	10,800,000,000	14.3
노동단위 당 순부가가치	18,161	17.8

자료: 독일, 소비자 보호 · 식품 · 농업부

3. 수익성

3.1. 농업

3.1.1. 2003/2004년 통계 자료

농업 부문의 수익성은 2003년에 크게 감소했다. 그랬다가 2004년에는 전일제 농업 노동자의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농업 경영체당 수익은 4.8% 증가하여 평균 2만 8,254유로에 달했다. 농업 노동자 1인당 인건비에 농업 경

영체 수익을 농업 노동자 수로 나누어 더한 값은 전년 대비 3.2% 증가하여 1만 9,134유로에 달했다. 수익성이 개선된 것은 곡물, 감자, 사탕수수 등의 가격이 상승하여 경종작물 부문 수입이 증가한 때문이다. 소득 감소 요인 들로는 무엇보다도 우유 가격 하락, 가뭄으로 인한 경지면적당 수확량 감소, 지출 증가를 들 수 있다.

표 2 농업 경영체 수익

영농 유형	농업 경영체 당 수익	
	금액(유로)	전년 대비 증감율(%)
경종 작물 생산	42,115	+25.2
원예(채소, 관상식물 등)	38,525	-5.0
포도주용 포도	33,910	+1.2
과수	39,340	+20.6
우유	22,749	-7.8
축산(비육우, 번식우)	20,147	-3.5
축산(양돈, 가금)	25,481	-4.6
복합영농	22,170	+2.6
전체	28,254	+4.8

자료: 독일, 소비자 보호 · 식품 · 농업부

농가 소득은 영농유형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구 동독 지방에서 법률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농업 경영체의 소득은 2004년에 들어서 더욱 개선되었다. 소득(연간 잉여 + 농업 노동자 1인당 인건비)은 평균 2.6% 증가하여 2만 3,308유로에 달했다. 이처럼 수익성이 개선된 것은 무엇보다도 비용 지출이 적었기 때문이다. 특히 농기계와 농업용 건축물의 유지보수 비용과 노동 비용이 낮았기 때문이다.

유기농업 경영체들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유기농업 경영체들의 수익은 2003년에 비해 평균 0.5% 증가했다. 그리하여 유기농업 경영체당 2004년도 평균 수익은 3만 7,090유로에 이르렀다. 이는 관행농업을 하는 농업 경영체와 비교할 때 약 34% 정도 더 높은 수치이다.

3.1.2. 전망, 2004/2005년

농업 경영체들의 경제적 상황은 올해에도 계속해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주로 경종작물과 양돈 부문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유 부문의 경우, 생산자 가격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득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농업 경영체 운영 비용 증가, 특히 비료나 난방 및 전동 장치를 운용하는데 드는 연료 비용 증가가 소득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일제 농업 노동자의 소득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임업

3.2.1. 2003년의 임업 현황

2003년에 사유림 부문과 공유림 부문 모두에서 경제적 상황은 더욱 개선되었다. 몇몇 지역에서 임목 벌채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목재 가격이 낮았음에도 목재와 여타 상품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비용 감소로 인해 독일 임업 경영체의 평균 순수익은 상당히 증가했다.

표 3 임업 경영체 순수익

영농 유형	임야 1ha 당 순수익(유로)	
	2002	2003
공유림	8	29
사유림	43	63

* 국가 지원금액 포함

자료: 독일, 소비자 보호 · 식품 · 농업부

3.2.2. 2004년 추정치

2004년에는 2003년보다 임목 벌채량이 더 많았다. 그러나 목재의 평균 가격은 감소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2004년에는 운영 비용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따라서 임업 경영체들은 약간의 수익률 감소를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독일, 소비자보호 · 식품 · 농업부
(김정섭 jskkjs@empal.com 010-7339-2546 서울대학교)